

‘불완전한 몸’의 질곡을 넘어*

-50대 레즈비언의 생애이야기-

성 정 숙

(University of Pennsylvania)

[요 약]

본 연구는 50대 레즈비언의 생애사연구로서, 연구참여자가 ‘지식의 주체’라는 페미니스트 인식론적 입장에서부터 ‘레즈비언 정체성’과 ‘레즈비언의 삶’에 관한 지식을 생산하고자 하였다. 구술자는 동성애 섹슈얼리티가 본질적이고 태생적인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것”이라는 생애사적 관점을 견지했으며, 구술자가 들려준 생애이야기는 동성애에 할당된 사회적 의미를 체현하고 ‘순응하는 몸’인 동시에 억압과 차별을 인식하고 타개하고자 실천하는 ‘저항하는 몸’에 관한 것이었다. 이 생애이야기에는 섹스-젠더-섹슈얼리티의 자연화된 고리를 끊어낼 만큼 고통스러웠던 화상과 ‘불완전한 몸’이라는 자의식으로부터 상처받은 삶의 굴곡뿐만 아니라, 이를 넘어 타자에게 진정으로 공감하고 위로하는 “복받은 몸”으로 의미를 재구성하는 놀라운 탄력성까지 오롯이 담겨져 있었다. 이렇게 연구참여자를 비정상과 병리 등의 의미가 부착된 이분법적 구분의 ‘성적 소수자’가 아니라, 사회적 불평등과 억압에서도 자신의 삶을 탄력적으로 살아가며 일상의 실천으로 변화를 만들어내는 주체적인 행위자로서 이해하는 것은 사회복지 이론과 실천에서 전혀 다른 전망을 요구한다. “젠더와 섹슈얼리티를 어떻게 배치해할 것인가?”에 대한 전환적인 모색은 새로운 시대에 당면한 사회복지학이 제시해야 하는 중대한 전망이며, 이는 ‘성적 소수자’에게만 할당된 이슈가 아니라, 사회의 권력관계와 위계구조를 조직하고 억압과 불평등을 영속화하는 섹슈얼리티와 이에 연동하는 젠더에 관한 ‘우리 모두’의 아젠다인 것이다.

주제어: 레즈비언, 페미니스트 인식론, 구술생애사, 섹슈얼리티, 젠더, 몸, 탄력성

* 본 연구는 박사학위논문의 일부를 수정, 재구성한 것입니다.

1. 들어가는 글 : 구성되는 정체성

본 연구는 한국 사회복지(학) 논의에 포함되고 있지 못하는 '성적 소수자'¹⁾에 관한 연구로서, '레즈비언'²⁾인 여성의 삶에 관한 질적 연구이다. 우리 사회에서 이들의 삶은 거의 가시화되지 않았으며, 이들에 대한 우리들의 '앓'이란 전혀 부재하거나 이들을 병리적인 존재나 사회적 금기의 일탈자로 간주하는 제한적인 담론들에 압도되어온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우리 사회에서 '레즈비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스스로를 레즈비언으로 정체화하는 개인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젠더와 섹슈얼리티³⁾가 개인의 고유한 삶의 궤적에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는가?" 를 질문하고, 앓과 권력의 관계에 대한 비판적인 페미니스트 인식론 안에서 연구참여자가 직접 들려주는 생애사를 통해서 이들의 삶에 관한 새롭고 대안적인 지식을 구성하고자 하였다.

생애사연구의 참여자는 설명이 되어야 하는 '연구대상'이 아니며, 또한 연구자의 질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에 머무르지 않는다. 이들은 새롭고 비판적이며 대안적이고 상황적인 지식을 함께 하는 구성하는 '지식의 주체'이다. 이들은 생애사 인터뷰에서 자신이 체험한 '객관적인' 과거 사실을 단순 묘사하거나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고유하게 의미부여 된 자신의 삶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고 전개하며 끝까지 종결짓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주체적으로 구성해간다. 박김수진(2006: 17)은 한 개인을 구성하는 수많은 정체성 중의 하나인 레즈비언 정체성 역시 다양하며, 한 개인의 생애 전체를 두고 보아도 충분히 변화할 수 있는 정체성임을 강조하였다. 정체성은 '고정되어 있는 특질이거나 핵심적으로 존재하는 단 하나의 완전무결한 정체성'인 것이 아니라, 사회문화적이고 복합적인 맥락 안에서 끊임없이 변동하며 구성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복합적이며 이야기적인 정체성의 구성'에 주목하여 중년의 레즈비언의 생애이야기를 주의 깊게 경청하고, 이로부터 얻게 되는 이들의 삶에 대한 '앓'을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그 함의를 성찰하고자 하였다.

- 1) '성적 소수자'라는 용어는 사회적으로 소수인 성적 지향과 소수인 성적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로써, '레즈비언'이나 '게이'보다는 정치적인 중립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사회적으로 수용된 용어이다. 그러나 이 용어의 사용은 이 범주에 보다 다양한 주체들이 포함되지만 현실적으로는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를 주로 지칭한다는 점에서 논쟁적이지만, 이 논쟁에 관한 논의는 본 논문의 영역밖이다. 본 연구에서 '성적 소수자'는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즉, 'LGBT'로 정의되며, 특히 다수 대 소수의 이분법에서의 '소수자'라는 포괄적 정체성을 지시한다. 그러나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주로 동성애자를 지칭하고 있음을 밝힌다.
- 2) 레즈비언(Lesbian)이란 동성애자로 정체화한 여성을 의미한다. 레즈비언은 성이 같은 여성에게 감정적, 심리적, 사회적, 성적인 이끌림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 자신을 여성 동성애자로 스스로 정체화한 사람을 의미한다(한국레즈비언권리연구소, 2006: 11).
- 3) 본 연구에서 섹스(sex)는 생물학적인 성차에 의한 성별을 의미하며 젠더(gender)는 남/여 구분의 사회적 구성을 강조하는 문화적인 성별을 의미하며, 섹슈얼리티(sexuality)는 성적 욕망, 실천, 정체성을 포괄하는, 성적인 것의 총체를 말한다. 섹슈얼리티는 우리 사회·문화 속에서 여/남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인지하는 것과 연관되며 그 개념이 성적 행위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성적 감정 및 관계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타자에 의해 성적으로 정의되거나 정의되지 않는 방식이자, 우리 자신을 정의하는 방식이다(이나영, 2009).

2. 연구방법 : 삶에 관한 경청

1) 구술생애사연구(oral life history)

본 연구는 생애사연구로서, 개인의 삶에 대한 복합적인 설명을 자신의 단어들과 자신의 목소리를 통해서 설명하는 방법이다. 연구자는 구술자가 들려주는 생애이야기를 구성하고 있는 특정하고 주요한 생애사건들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러한 사건들에 대한 주제적 해석과 이러한 해석들이 사회적 맥락 안에서 형성되는 방식을 탐구한다(Brotman and Kraniou, 1999: 420). 개인의 생애사연구가 단순히 어떤 한 개인의 ‘들여다보기’가 아니라, 그가 체현하고 있는 지평으로부터 ‘세상을 조망(眺望)하는 것’이 되는 이유는 개인의 생애사, 생애이야기 역시 매우 개인적인 설명인 동시에 ‘시대의 살아가기’가 육체화(incarnation)된 사회적인 자료이기 때문이다(Schrager, 1983: 93).

생애사연구는 페미니스트 연구자들로부터 종전의 다른 연구방법론에 비해 여성을 자기 삶과 경험, 앎과 지식의 주체로서 접근하는데 더욱 밀착된 전략들을 제시하는 것으로 평가받았다(이재인, 2006: 75-76). 또한 생애사는 외부자의 시선과 지배적 담론에 의해 소외된 이들의 삶이 왜곡되지 않도록 하는 내재적 접근의 가능성을 극대화하기 때문에 이제까지 공식적인 역사와 사회연구의 대상에서 배제된 권력없는 체험들을 언어화한다(이희영, 2005: 136). Brotman과 Kraniou(1999)는 정체성의 형성이 복합적이고 갈등적인 것을 전제하면서 인종적이고 민족적인 맥락이 복합적으로 교차하는 레즈비언의 구술생애사를 통해서 그가 구성하는 주관적인 정체성들을 탐구하였으며, Kennedy(1995)는 나이든 레즈비언의 구술생애사를 통해 스톤월 항쟁(Stonewall riots)⁴⁾ 이전부터 존재했던 레즈비언 저항의 역사를 복원하였다. 이성애중심사회에서 더욱 더 주변화된(marginalized) 위치에서 살아온 레즈비언에게 구술생애사는 억압되고 배제되었던 자신들의 역사쓰기이며, 동시에 인간으로서의 존재를 드러내며 주체성을 확립하는 과정이며 탄압과 차별에 대항하는 첫걸음이기도 하다. 따라서 생애사연구는 ‘성적 소수자’로서 사회적으로 배제되고 차별받는 레즈비언의 삶을 가시화하고 그 삶으로부터 지식을 구성하고, 함께 소통하기 위한 토대를 만들고자 하는 본 연구에 가장 부합되는 연구방법이라 하겠다.

2) 구술생애사연구의 과정

본 연구의 과정은 Clandinin과 Connelly(2000, 소경희·강현석·조덕주·박민정 역)가 제시한 내러

4) 동성애자의 인권운동을 보다 조직화하고 세력화하도록 동인을 제공해준 것은 1969년 스톤월저항사건(stonewall riots)이다. 게이 바(gay bar)에 대한 경찰의 단속과 단속과정에 따른 폭력과 차별, 모멸에 대해서 동성애자들이 저항하기 시작하면서 3일 동안 스톤월 일대에는 2천여 명의 동성애자가 참여하는 대규모의 시위가 벌어졌다. 이로부터 동성애자 해방전선(the Gay Liberation Front)의 결성되는 등,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자들의 인권운동이 본격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티브 연구과정을 핵심적인 세 가지 과정, 즉 “현장으로 들어가기/ 현장텍스트 구성하기/ 연구텍스트 구성하기”로 재구성하여 이루어졌다. 본 연구자는 본격적인 현장 진입에 앞서 2006년 창립된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학회』가 2007년에 중점적으로 논의했던 연구윤리를 기준으로 연구과정에서 연구자가 지켜야할 원칙들을 재확인했다. 연구동의서⁵⁾에 대한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친 후, “연구윤리를 성실과 진실하게 준수하겠다”는 연구자의 서명과 “연구참여와 녹음에 동의한다”는 연구참여자의 서명이 진행되었고, 연구자와 참여자 각각 1부씩 나누어 소장하였다.

연구참여자에 대한 섭외는 선행연구를 통해서 알게 된 레즈비언 인권활동가의 도움을 받아 레즈비언 커뮤니티와 접촉한 후, 눈덩이표집법으로 이루어졌다. 이인혜의 생애사 인터뷰는 예비인터뷰, 후기모임 등을 제외하고 총 3시기(박성희, 2003: 7-10)⁶⁾에 따라 약 8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인터뷰 직후 관찰일지와 현장텍스트를 작성하였고 1차 분석 이후에 추가 인터뷰가 진행되었으며, 생애사 구술이 종료된 이후에는 후기 모임을 통해서 현장텍스트와 연구텍스트를 공유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을 거쳤다.⁷⁾ 생애사 인터뷰는 전적으로 연구참여자인 구술자에 의해 주도되는데, 연구자의 질문에 대하여 연구참여자가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애사적 경험들을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에 의해 연구자에게 ‘이야기하는(narrate)’ 것이다.

생애사연구인 본 연구는 생애사 인터뷰를 통해 구술로 이야기된 생애사 자료를 채록하고 이를 전사하여 현장텍스트⁸⁾를 확보하였다. 현장텍스트는 생애사 인터뷰의 역동적인 과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터뷰과정을 구성하는 연구자와 연구참여자의 관계가 가장 핵심적이다(소경희 외 역, 2007: 184). 이 관계는 자료수집의 과정뿐만 아니라 분석과정을 통해 연구텍스트의 형태와 내용을 구성하며, 나아가 연구의 인식론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과정이자 도구이다. 본 연구의 모든 과정은 페미니스트

- 5) 연구동의서에는 연구의 목적과 함께 인터뷰의 방식이나 횟수, 인터뷰의 녹음과 인터뷰 자료의 활동방안 등 전반적인 연구진행 과정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담았으며, 지금까지 살아온 생애를 들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웠던 삶을 회고하게 될 때 감정적인 고통을 겪을 수 있으며, 따라서 연구참여자가 원할 때에는 언제든지 인터뷰나 연구참여를 중단할 수 있는 권리와 연구의 전 과정에 대한 정보를 함께 공유하고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명백히 하였다. 그리고 비밀보장을 위한 익명, 가명 처리 등의 전략을 제시하고 이 모든 과정이 지도교수의 감독이 따라 이루어진다는 공지도 포함되었다.
- 6) 제 1시기는 인터뷰의 시작으로 연구자가 구술자에게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의 인생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제 2시기는 구술자가 자신의 생애이야기를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 중단없이 구술하는 시기이다. 이 때 연구자의 역할은 진심을 다하여 경청하는 것이며, 구술이 연구자에 의해 전환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제 3시기는 연구자가 구술자의 생애 이야기를 경청한 후 연구자의 시각으로 구성된 질문을 할 수 있는 시기이다. 이때 본 연구자는 주요한 생애사건과 연도를 중심으로 일종의 ‘생애 지도(life map)’를 작성하여 누락되거나 모호한 부분을 질문하였다.
- 7) 본 논문에서 사용되는 “이인혜”는 가명이며, 관찰일지는 인터뷰 도중 연구자가 틈틈이 작성한 메모를 토대로 인터뷰 직후에 작성하는 것으로 인터뷰 전반적인 환경과 분위기에 대한 연구자의 느낌과 생각, 그리고 인터뷰 과정에서 참여자가 보이는 행동적인 특성이나 표정, 구술의 뉘앙스 등에 관한 서술로서, 현장텍스트의 구술맥락을 보완하며 추후 인터뷰 방향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한다. 후기모임은 현장텍스트에 연구텍스트에 대한 연구참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는 것으로 연구과정과 연구결과에 대한 연구자의 윤리적 책임을 제고하게 만드는 장치이다.
- 8) 본 연구에서 현장텍스트란 생애사 인터뷰라는 행위적인 텍스트를 의미하는 동시에 이를 텍스트화한 축여록을 의미한다.

인식론으로부터 도출된 5가지 주요 원칙들 즉, ‘타자’인 여성의 입장에서부터 사고를 시작하기, “강한 객관성”을 위한 “발견의 맥락”을 드러내기, 지식의 주체로서 연구참여자 인식하기, 연구참여자과 공동 작업하기, 개인적인 것을 정치화하기 등에 의해 주도되었다. 연구자는 이 원칙들을 통해서 연구참여자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성찰하면서 연구과정과 연구결과에 대한 인식론적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현장텍스트의 분석은 Ricoeur에 의한 텍스트 읽기로 구성된 Nygren과 Bloom(2001: 375)의 내러티브 분석에 따라 이루어졌다. 이 분석과정은 “단순하게 읽고 ” 그 다음 “주의 깊게 읽고” 그리고 “구조적으로 다시 재구성하는” “3단계의 읽기”로 진행되었다.⁹⁾ 질적 연구에서 연구자는 연구참여자과의 일대일의 밀접한 접촉, 대화, 함께 작업하는 것에서 벗어나 현장텍스트를 읽고 또 읽으면서 연구텍스트 작성을 시작한다. 이는 연구참여자과의 밀접한 관계가 끝났다는 것이 아니라, 현장텍스트로부터 ‘다시 이야기되는’ 연구텍스트로 초점이 이동했음을 의미하며(소경희 외 역, 2007: 238), 현장텍스트 안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구성하는 작업을 통해서 현장텍스트는 연구텍스트로 재구성된다.

3. 연구텍스트 : 다시 이야기하기

본 연구는 현재 50대 초반의 여성으로서 사회복지사이며, 동성애자 커뮤니티에서 만난 파트너와 10년째 함께 살고 있는 레즈비언 이인혜의 생애이야기에 관한 것이다.¹⁰⁾ 연구자는 이인혜의 전체 생애사를 시간적 순서에 따라 간략하게 개괄적으로 제시한 후, 텍스트 분석을 통해서 나타난 총 5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젠더와 섹슈얼리티가 한 개인의 삶의 궤적을 어떻게 재구성하는지에 대한 연구텍스트를 작성하였다. 이인혜의 생애사에서 젠더와 섹슈얼리티는 그 사회적이고 개인적인 의미가 모두 체현

9) 첫 번째 읽기는 “단순하게 읽기”로서 전체로서의 텍스트에 대한 이해를 얻는 것이 목적이다. “이 이야기들이 어떤 의미들을 표현하는가?”라는 질문에 열려있는 답을 찾는 과정으로 연구자는 단순하게 읽으면서 분할하기(segmenting)하고 메모를 붙여 나갔다. 반복된 단순하게 읽기를 통해 텍스트에 대한 전체적인 맥락을 충분히 이해한 다음 “주의깊게 읽기”를 진행했다. 이 읽기의 목표는 텍스트의 의미를 보다 구조적으로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으로, 분할되고 메모가 붙여진 텍스트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면서 숨겨진 의미를 파악하고 행간이나 침묵까지도 주의하여 읽어내어 의미들을 개념화하고 구조화한다. 개념화된 의미가 포함된 텍스트들을 문단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동일한 의미끼리 뭉쳐진 하나의 코드로 모은다. 이렇게 진행하는 초기 코딩은 의미가 한 문장씩 분리되지 않고, 텍스트내의 맥락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장점이 있다. 초기 코딩을 거듭해가는 과정은 자연스럽게 심층코딩으로 전환된다(김영천, 2008: 491). 제 3단계는 심층 코딩으로, 초기 코딩을 통하여 만들어진 코드들을 포괄하고 응축하여 주제별로 묶어내면서 이를 전체 생애이야기의 맥락 안에서 재구성하는 작업이다.

10) 본 연구자는 박사학위논문작성과정에서 총 6명의 레즈비언과 생애사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이 중 이인혜 생애사를 선택하여 본 논문을 작성하게 된 것은 역경과 극복을 보여주는 중년의 생애이야기로서 그녀가 사회복지사라는 점, 또한 젠더와 섹슈얼리티와 관련하여 이론적인 쟁점을 제기하는 요소들이 많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인혜의 생애사가 한국의 레즈비언의 삶을 대표하지는 않는다. 본 연구는 “부분적(partial)이고 상황적인(situated) 지식”이라는 페미니스트적 인식론을 토대로 개인의 한 생애이야기가 사회의 젠더와 섹슈얼리티 등의 사회적 맥락 안에서 어떻게 구성되고 이해되는지를 탐구하고자 한다.

된 '몸'과 관련된 주제로 구술되었으며, 개인적인 생애사건(화상)에 의한 부정적인 자의식과도 연결되어 있었다. 그녀의 생애사적 과제는 화상과 등치되는 자신의 '결핍된 몸'과 화해하는 것이었고, 생애과정은 자신의 몸에 체현된 의미들을 긍정적으로 재구성하는 탄력적이고 주체적인 과정이었다. 연구텍스트는 '여성일 수 없는 몸 : 동성에 섹슈얼리티', '강제적 이성애의 억압 : 결혼', '새로운 가족 : 레즈비언 관계', '순응의 몸 : 호모포비아', '저항의 장소 : "복받은 몸"' 등의 제목으로 작성되었다.

1) 생애사 요약

이인혜는 1962년 지방 K시에서 2남2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경제적으로는 유복했으나 순탄한 가족 사이지는 못했다. 아버지는 상당히 높은 지위의 직업군인으로 가정도 군대처럼 엄하게 관리하시면서 수년간 혼외관계를 유지하다 끝내는 가족을 떠나는 이중적인 삶을 사셨고, 어머니는 남편의 오랜 외도에도 가정의 울타리를 지키며 자녀들을 길러낸 외유내강의 전형적인 조강지처의 삶을 사셨다. 이인혜는 어린 7살에 일생일대의 사건을 겪었으며, 그것은 어머니와 외삼촌과의 말다툼에서 유발된 심각한 화상사고였다. 화상은 어린 목숨을 건졌다는 것이 다행스러울 만큼 위중한 것이었고, 그녀는 절록 거리지 않고 견을 수 있기까지 오랜 시간동안 어려움을 겪어야 했고, 화상은 그 후 그대로 몸에 낙인처럼 남았다. 그녀에게 어린 시절은 이 화상에서 비롯된 엄청난 신체적, 심리적, 정신적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고통스런 나날들이었지만, 재활을 위해 시작한 태권도가 크게 효과적이면서 이인혜는 조금씩 몸에 대한 물리적인 통제력을 회복할 수 있었고, 더불어 심리적인 안정감과 자신감을 조금씩 찾을 수 있었다. 지난했던 재활과정의 고통과 아픔은 비슷한 아픔을 갖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감수성과 공감능력을 키우게 되는 소중한 성장 경험이 되었다. 그래서 그녀는 장애를 가진 아동과 부모를 위한 사회복지사가 되겠다는 장래희망을 가졌으며, 그 누구보다도 진심으로 실천하는 사회복지사가 될 수 있었다.

이인혜는 고등학교 때 동성친구로부터 고백을 받은 후, 이 친구와의 사귀음을 통해 자신을 동성애자로 정체화했으며, 그 후로도 그녀는 남성과 특별한 에피소드 없이 동성인 여성과 사랑하지만 모두 남성과의 결혼을 선택하여 떠나는 연인들을 지켜봐야 하는 아픈 경험들이었다. 그러던 중 그녀 역시도 1987년 암 말기관정을 받은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드리기 위해서 1988년 27살 되던 해에 중매 결혼을 감행한다. 어머니가 편안하게 돌아가신 후 이 상황을 되돌릴 수 있을 거라는 이기적인 생각도 있었다. 그러나 예상 밖으로 어머니는 그 후로도 10년 넘게 투병하셨고 이인혜의 결혼도 그동안 지속되었다. 하지만 남편의 무관심과 외도, 가출로 점철된 결혼생활은 정처 없는 기다림과 외로움, 깊은 배신감과 좌절감을 안겨주는 불행의 시절이었으며, 남편과 연락이 두절된 상태로 오랫동안 형식에 불과했던 이 결혼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2001년, 결국 10년 만에서야 법적인 이혼으로 종결되었다.

이즈음 이인혜는 두 번의 큰 수술로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매우 미약한 한계 상황에 이르면서 우울과 자살 생각 등 큰 위기에 직면하지만, 다행히 현재의 파트너를 만나 서로 따뜻하게 보살피는 안정적인 삶을 꾸릴 수 있게 되었다. 이인혜는 비로소 갖게 된 '가족'과 신앙 공동체의 든든한 지지

를 토대로 “자신의 삶을 짓밟았던” 외삼촌과 화해를 시도하며 오랫동안 그녀에게 지워지지 않는 트라우마였던 화상의 깊은 상처로부터 회복하고 보다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 현재 이인혜는 ‘불완전한 몸’이라는 질곡을 넘어서 “공감하고 위로하는 몸”으로서 자신의 의미를 긍정적으로 재구성하는 생애사적 전환을 이루어내며 살아가고 있다.

2) 주제 1 - 여성일 수 없는 몸 : 동성애 섹슈얼리티

이인혜의 생애이야기는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겨울, 7살 어린 시절의 충격적인 기억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외가에서 큰 딸이었던 어머니는 “깡패 같았던” 막내 남동생에게 자주 시달림을 당해왔다. 그 해 겨울에도 그는 누나에게 돈을 달라는 실랑이를 벌였고, 누나가 돈을 순순히 내주지 않자 화가 나 거실에서 물이 끓고 있었던 들통을 어린 조카가 있는 쪽으로 차버렸다. 끓고 있던 물은 순식간에 어린 이인혜의 몸으로 쏟아졌고, 그녀는 옷이 녹고 다리의 뼈가 녹는, 아주 심각한 화상을 입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허리 아래로부터 다리로 이어진 화상은 당시의 치료로 쉽게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했으며, 절름거리지 않고 걷기까지 오랜 재활기간을 거쳐야 했다. 그러나 마치 “외계인”처럼 기괴스럽게 남은 화상은 이인혜의 몸과 정신에 그대로 새겨졌다.

이 날의 사고는 이인혜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생애사건으로서 의미부여 되었으며, 몸에 남은 화상은 유년 시절을 왕따 당하고 놀림당하는 경험으로 소환되는 몸의 상처를 넘어서 동성애자, “만들어진 이반¹¹⁾”으로서의 인생을 조형하게 되는 생애사적 전환으로 위치 지워진다. 그녀에게 ‘화상 입은 몸’은 여성으로 표상(representation)될 수 없는 치명적인 결함을 가진 몸이었으며, 이 ‘여성일 수 없음’은 우리 사회에서 전통적인 여성의 삶으로 규정된 삶, 남자로부터 사랑을 받고 아이를 출산하는 소위 ‘일반’적인 여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불완전한 몸’에 대한 이인혜의 생애사적 관점은 36세 때 겪었던 두 번의 수술에 관한 이야기에서도 단적으로 드러난다. 1차 수술이 명백한 의료사고였고 그로 인해 2차로 자궁적출수술이라는 심각한 결과가 초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이를 담담하게 받아들인다. 결혼기간에 아이를 갖지 못했던 ‘자궁’은 한 남자의 아내로서 살 수 없었던 그녀에게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 의미를 잃었던, ‘불완전한’ 몸의 일부에 불과했던 것으로 읽힌다.

‘아, 나는 여자¹²⁾로서의 삶을 살 수 없다. 여자로서의 인생은 끝났다.’ 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치마를 입은 적이 없고……, 짧은 바지, 반바지도 입은 적이 없고…….

11) 동성애자들은 ‘퀴어’라는 단어와 마찬가지로 스스로를 ‘이반’이라고 칭하는데, 이것은 주류이고 대세인 이성애자들을 ‘일반인’이라고 칭하는 것에 대한 빗대임이다. 이는 치열함을 통해 쟁취한 자기 긍정의 결과이기도 하다(성정숙·이현주, 2010: 198)

12) 현장텍스트에서 굵은 글자로 표시된 것은 구술자 당시 특별히 강조한 단어이다. 강조를 위해서 세계 힘주어 말하거나 말하는 속도감에서 벗어나 천천히 또박또박 말한 것을 표시하였다.

이인혜의 생애이야기에서 ‘불완전한 몸’에 대한 관점과 동성에 섹슈얼리티의 구성은 매우 밀접할 뿐만 아니라, 연쇄적인 것으로 이해되었다. 그녀는 고2때 동성 친구로부터 처음으로 사랑을 고백을 받는데, 고백을 듣기 전까지 단 한 번도 성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해본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인혜는 “자신을 사랑한다”는 여성의 고백을 운명처럼 받아들였다. 이인혜에게 동성애자의 정체성은 화상의 치명적인 상처로 인해 자신은 남성에게 보여줄 수 있는 ‘여성스러운 몸’이 아니라는 인식, 남성과 결혼해서 ‘여자’로서 살 수 없는 ‘불완전하고 결핍된 몸’이라는 의식 혹은 무의식으로부터 출발하고 있었다. “남자 앞에서 결코 옷을 벗을 수 없었던” 그녀는 자신이 “이렇게(동성애자로) 살 운명”이었으며, 이 화상만 없었다면 이성애자로서 ‘일반’의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인혜에게 레즈비언의 정체성은 “이 세계에 가 살아야 했던 것”이며,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것이었다.

나는 절대로 남자와 사귄 수 없는 사람……. 이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내 상처를 남자에게 보이고 싶지 않는……. 그게 아마 좀 강하지 않았을까? 내가 타고난 이쪽 이반이었다 그러면, 신경을 별로 안 썼을 것 같은데, 나는 타고난 이반이라기보다는 **만들어진** 이반이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작은 웃음). 참,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절대적으로 누구에게도 이 모습을, 그 여자 친구들한테는 참, 희한하게, 이런 얘기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섹스를 하면서도 나는 옷을 벗어본 적이 없어. 그 여자애들 하고, 그게 말이 안되지 않아. 보여주기 싫었던 거죠, 나를 보여주기 싫었던 거야. 그니까……. 참, 위선적이었죠. 그게 그러면은 안 되는 거였는데……. 그 친구들은 몰라요, 내가 그렇다는 걸 몰라. 근데 말이 안되지 않아요, 진실한 사랑을 안 한 거지, 사실은, 나를 감추고 산 거지. 감추고 살고, 어쩌면은, 남자사귀면, 내가 옷을 벗어야 되고, 잠자리를 해야 되고……. 되게 불안했던 것 같애. 심적으로,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애. ‘난 앞으로 결혼을 못 할 거야.’ 뭐 이런 거. 그래서 아마 그 친구가 나한테 접근을 했을 때, **그래, 난 이 세계로 가 살아야 돼.** 이런 거. 내 의지가 아닌 뭔가……. 그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 정신분석 한번 받아봐야 되는데, 정말로요, 분석 한번 받아봐야 해. 회피체계였던 것 같아요.

이인혜에게 화상은 곧 불완전한 자신, 여성성을 상실한 결합적 존재로서의 주체를 의미했고, 소위 ‘아름다운 몸’이 아닌 그녀의 몸은 극단적으로는 섹스(성별)로서의 ‘여성’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심되며, ‘여성스럽지 않은 몸, 그래서 남성에게 거부되는 몸’인 이인혜는 ‘여성을 욕망하는 몸’으로 과감한 탈주를 시도한다. ‘여성성’ 즉 젠더에 대한 치명적인 결합은 생물학적 섹스로서의 ‘여성’에 대해 의심을 제기할 뿐만 아니라, 여성을 욕망하는 섹슈얼리티를 구성함으로써 섹스와 젠더와 섹슈얼리티의 자연화 된 연결고리까지도 끊어낸다. 여성을 사랑하는 자신의 섹슈얼리티가 타고난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것이라는 그녀의 생애사적 관점은 섹슈얼리티가 사회적인 관계에 의해서 구성되며, 변화하고 이동하는 것임을 보여준다. 특히 ‘아름다운 몸’으로 체현되는 젠더에 대한 의심이 결국은 생물학적 섹스에 대한 의심으로 파급되는 것은 Butler(2006, 조현준 역)의 “섹스도 젠더였다”는 지적과 맞닿는 지점이기도 하다. 이렇게 이인혜의 구술생애사는 젠더와 섹스와 섹슈얼리티가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는 태생적인 것이 아니라, 의심할 만하고 또 의심한 대로 변동될 수 있는 것임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매우 급진적이다.

그러나 이인혜는 젠더와 섹스를 구성적인 것으로 해석하면서 사회의 전형적인 젠더규범과, 젠더와 섹슈얼리티와의 연계성으로부터 탈주하는 ‘저항적인 몸’을 보여주는 동시에 이러한 탈주의 뿌리가 전형적인 젠더규범과 젠더와 섹슈얼리티간의 정해진 각본의 뒤집기인 ‘거울 이미지’에 있다는 측면에서 ‘규율을 체현해내는 몸’임을 함께 보여준다. 즉 ‘여성스러운 여성이 남성을 욕망하는 것’의 거울 이미지는 ‘여성스럽지 않은 여성은 여성이 아니기 때문에 남성을 욕망할 수 없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저항적으로 탈주하는 그녀의 ‘몸’은 동시에 현재 우리 사회를 주도하는 젠더와 섹슈얼리티의 의미와 관계들 또한 체현하는, 소위 ‘규제’가 실천되는 현장이기도 한 것이다.

‘나는 너무 약한 것 같아. 어쩌면은 어려서부터 내가 사람구실을 할 수 있을까? 내가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자식을 낳을 수 있을까?’ 여자니까 생각을 하죠. 근데 어느 날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나타났던 말이죠. 두근거려. 근데 **여자야**. 맨날 ‘내가 여자구실을 할 수 있을까. 아기를 낳을 수 있을까?’에 대해 고민을 했기 때문에 아. 그냥 이 인생으로 살아야지, 이런 게 어쩌면 그렇게 맞닥뜨려져서 각인을 시키고, 내가 그것으로 길을 정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가는 것 같아요.

남성에게 수용될 수 없는 ‘몸’으로서 여성을 욕망하게 된 그녀의 선택이 의식적이었는지, 무의식적이었는지는 전적으로 이인혜의 해석의 영역에 남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녀의 섹슈얼리티에 관한 설명은 자신의 몸이 남성의 시선에 의해서 욕망되지 않을 것이라는 일종의 평가에서 출발하고 있으며, 그 평가는 남성이 욕망의 주체가 되고 여성은 그 주체에 의해 선택을 받는 ‘몸’이라는 남성 중심적인 권력관계를 전제하고 있다. 가부장적 사회에서 남성이 주체가 되어 여성을 객체로, 성적인 존재로 대상화하는 것이 당연시되면서 여성에게 외모, 즉 몸에 대한 평가는 자신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장운필화, 1999: 133). 이인혜 역시도 자신의 몸을 ‘남성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평가하고 있다. Beauvoir(1989: 34)가 여성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생성이며, 몸은 사물이 아니라 상황이라고 주장하는 것처럼(김진아, 2005: 41 재인용), 이인혜의 ‘몸’은 오늘날 사회에서 구성된 여성에 대한 시선을 포착하는 상황에 있는 것이다.

이 상황은 일상을 이루는 육체적 관습을 통해 개인의 몸은 권력이 만들어내는 불평등한 사회관계를 수용하고 습득하고 반복하게 된다는 것, 몸이 특정한 사회적 기준에 적응하기 위해 스스로를 주어진 사회적 규율에 따라 길들이는 측면을 보여주는데, 이는 Foucault가 “감시와 처벌(1975, 오생근역)”에서 말하고 있는 ‘순응하는 몸’이다. ‘사람됨의 유일한 실체적 드러남인 사회적 산물’로서의 몸은 흔히 내면세계의 가장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인식되지만, 이 몸은 또한 각종 문화적·사회적 기호 및 표상들로 구성된 것이며, 문화적 규범에 의해 철저히 ‘규제된 몸’인 것이다(윤조원, 2005: 103).

나는 타고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반은 타고 난다.’ 왜냐하면 주변에서 하는 얘기가 “다 타고난 거야. 이건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없는 거야. 타고 나는 거야”. 그렇게……. 근데 아니야……. 사람들 마다 다른 거야. 난 타고난 건 아닌 건 같은데……. [남자랑] 얘기하는 게 싫거나 그렇지 않아요. 내 식구지, 이렇게 생각은 드니까……. 만들어진 것 같기도 하고……. 난 ‘타고나야만 이, 이반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인제 난 타고난 거 같지는 않고요. 어찌 보면 ‘**만들어졌다**’. 그거……. 만들어진 게 제

삶 인거야.

‘성적인 것’의 내용이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구성된 것이라는 인식의 변화는 여성의 섹슈얼리티가 여성의 젠더로 환원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작동하는 별개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섹슈얼리티는 구성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는 늘 유동적이며 경합하는 것으로 인식이 전환될 때, 여성의 다양한 섹슈얼리티가 현실이 되면서 모든 여성이 ‘순결한 이성애여성’으로 환원되지 않게 된다(조주현, 2000: 6). Butler(2006, 조현준 역)는 젠더나 섹슈얼리티 모두를 권력의 효과, 법의 결과물로 간주하면서 정체성을 담론적 생산물로 개념화한다. 즉, 정체성은 본질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당대 지배 권력과 규율담론이 생산한 이차적인 효과라는 것이다. 이렇게 섹슈얼리티와 정체성을 고정적이고 본질적인 특성으로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구성되고 권력에 의해 규제되고 통제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사회에서 정상적인 것으로 당연히 전제되어온 이성애가 인간의 자연적인 본연의 특질이 아니라 사회문화적으로 구성되어온 것이며 사회적 구분과 위계를 조직하고 권력관계를 작동시키는 주요 원리임을 인식할 수 있게 된다(조현준 역, 2008: 30).

3) 주제 2 – 강제적 이성애의 억압 : 결혼

이인혜는 이반으로서 자신을 긍정하게 되었던 고 2 때의 첫사랑을 지나, 대학시절 이후에도 남자를 사귀거나 혹은 사귀고 싶다는 생각이 든 적은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현실은 자신이 사랑했던 ‘그녀’가 이 결국은 남자와 결혼하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 그런데 이인혜의 어머니가 암 말기로 두 달의 시한부 삶을 선고받으면서 막내딸의 결혼을 마지막으로 소원했고, 이를 뿌리치지 못한 이인혜는 결국 두 달 만에 중매결혼을 감행하게 된다. 그녀는 우선은 위중했던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어 드린 다음,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되면 이혼을 하는 것으로 이 상황을 해결하겠다는 이기적인 판단을 한 것이었다. 그러나 어머니는 그 후로 10년을 더 투병하셨고, 그녀의 결혼 또한 10년 더 지속되었다.

결혼생활은 이인혜에게 ‘불완전한 몸’의 트라우마를 재확인하는 뼈아픈 생애과정이었다. 남편으로부터 수용되지 못한 ‘몸의 상처’는 여성으로서의 전형적인 삶이 자신에게는 불가능한 것으로, 더 나아가 “만들어진 이반”이라는 생애사적 관점을 확고히 주지시켰다. 중매로 빠르게 진행된 혼사였고, 중매인이 화상에 대한 언지를 주었다고 해도 직접 확인할 수 없었던 그녀의 남편은 막상 그 화상의 정도를 예상치 못했던 것 같다.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난 직후부터 남편의 외도가 시작되었고, 마치 주말부부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남편은 주말이 되어서야 집에 들렸으며, 언제부터인가는 겨우 전화연락만 되었다가 결국은 그 연락마저 두절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인혜가 마흔 살이 되던 해, 결국 투병하시던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남편은 어머니의 장례식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어머니 장례식 이후, 그녀는 10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단지 형식에 불과했던 결혼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인혜의 생애사에는 동성에 섹슈얼리티에 대한 사회적 억압과 차별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결혼한 기혼 여성에게 부과하는 전형적인 역할, 즉 순종적이고 사랑받는 아내이자 아들을 낳아 대를 잇

는 머느리여야 한다는 전통적인 젠더 규범이 가져오는 억압이 중첩되어 있다. 그녀는 남편의 외도뿐만 아니라 불임으로도 큰 어려움을 겪었다. 불임의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술되지는 않았으나, 대를 잇지 못하는 책임은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여성인 이인혜에게 오롯이 귀착되었다. 남편과 시부모는 모든 책임을 그녀에게 전가시키고 “씨받이”라는 극단적인 방식으로 남편의 외도를 용인하도록 만들었다. 이인혜가 이 모든 책임의 귀착으로부터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지 못했던 것은 그녀 스스로가 자신을 여성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아픈 몸, 불완전한 몸”이라는 트라우마로부터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근데도 안 생겨갖구, 결국에 나도 스트레스 많이 받는 거고, 그리고 항상 이런 거 있었던 것 같애. 왜 시댁식구들이나 시댁 어르신들이 “넌 왜 항상 뱃가죽이 등쪽에 붙어 다니니? 아기 못 낳는다.”고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서……. “맞아요.” 나는 인정은 또 잘해. “맞아요, 죄송해요.”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중략) 그쪽에서는 3대 독자여가지고, 나는 이 3대 독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 남자를 통해서 알았는데, 온 집안이 다 들고 일어나더만요. 다 일어나더라고, 그리고 못 살게 하고, 결국에는 시어머님이 어느 날은 옆에 와 가지구. “내가 너한테 참 미안한 애긴데…….” 그냥 일종의 그거죠, 씨받이……. “음…… 그 애하고 살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자식만 낳아 주고, 돈 얼마 주고, 대가만 치루고 그렇게 할 거다. 니가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얘기한다.” 이러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씨받이 거예요. (중략) 그래서 뭐라고 대답을 해줬냐면은, “어머니 뜻대로 하세요.”라고 얘기했어요. 그 때, 너무 죄송하구, 내가 몸이 좀 건강하거나 이렇게 일찍 좀 자손을 봤어야 하는 건데……. 뜻대로 안되니까 어머님 원하시는 대로 하시라구.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고맙다. 니가 그렇게 이야기해줘서…….” 굉장히 조용하게 이야기 했던 것 같아요.

“아이가 있었으면 결혼을 유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하는 그녀의 확신은 자신의 동성에 섹슈얼리티가 “만들어진 것”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지만 동시에, 그 배경에는 ‘남성과의 결혼과 자녀의 출산은 모든 여성에게 자연스러운 삶’이라는 강력한 젠더 규범을 작동시키는 ‘강제적 이성애제도’¹³⁾가 있다. 결혼이 남성 권력과 특권을 제도화한다는 비판(Bhattacharyya, 2002: 18)에도 불구하고, 당시 결혼과 출산은 성숙한 여성이면 당연히 해야 하는 핵심적인 역할이자 여성의 존재를 가치있게 증명하는 부동의 요소였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거나 결혼을 거부하는 여성들은 중요한 능력이 결핍된 여성이거나 혹은 중대한 역할 수행을 방기하는 이기적이고 마녀적인 여성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강제적인 이성애 제도와 결혼의 기제 안에서 1980년대 가부장적인 사회가 기혼 여성에게 부가하는 젠더 규범과 젠더 역할을 체현해온 이인혜 역시도 남편의 외도를 자신의 책임으로 귀착시키며 오랜 세월동안 그를 기다렸으며, ‘아름다운 가족’을 실현하고자 소망했고 또 그것이 가능했을 거라는 믿음을 쉽게 저버리지 못했다. 그녀의 생애사에는 아이러니하게도 ‘첩을 데리고 살았던 남편이 늙고 병들어 조강지처를 찾았고 그런 남편을 맞아 헌신적으로 간호했던’ 자신의 어머니 이야기 즉 “외도하는 남편

13) 이성애 결혼과 아이의 출산에 대한 강력한 소망이 모든 여성에게 당연히 존재하고 매우 핵심적이며 고유하고 자연적인 것으로 전제하는 ‘강제적’인 이성애제도는 이러한 각본 외부에 있는 다른 섹슈얼리티와 다른 정체성들을 비정상적이고 실패한 것으로 규정한다(Rich, 1980: 648-653).

과 기다리는 아내”의 즐거리가 부분적으로 반복되었는데, 이러한 신화속에서 ‘결혼의 실패, 가족꾸리기의 좌절’은 그녀가 이루지 못한 아쉬운 꿈으로 남았고, “다 하지 못한 책임감”으로 표현되었다.

그런데 아이러니 한 것은 같이 TV보고 있으면서도 한 가정의 단란한 그거 있죠. 아빠, 엄마, 아이들 이런 거 나오면 가끔씩은……. 부러운 건 아닌데요, ‘내 삶도 저런……. 내 인생 속에 저런 게 한 번쯤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해요. 이 긴 삶속에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저런 모양의 가족이 나한테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한번 씩은 있거든요. 그런 거 같아요. 그렇다고 남성이 확 끌려서 그런 거는 아니고요. 서류정리되기 전까지는 남편에 대한 기다림이 있었죠. (중략) 음……. 불안정한 삶보다는 여지들끼리 살면 불안정해요. 근데 남편이 있으니까, 안정된 삶이 보장이 되잖아. 호적도 그렇고 모든 게……. 그래서 그냥 ‘이 남자가 들어와야 된다. 그리고 나를 아내로 같이 살아야 된다.’ 이런 게 항상 있었는데, 결국은 이혼이 되니까 마음의 상처가 컸어요. 심적으로는 컸는데, 겉으로는 조카들이 파티 해줬죠. “언니 이혼 축하해.” 이러면서……. 사촌동생이랑 조카들이(웃음) “고모, 축하해. 그 놈 하고 헤어진 게 정말 다행이야~.” 다행이긴 하지만, 내 한 건에서는 한 일가를 이루어서……. 그게 깨져버린 거 아니예요? 그거에 대한 책임감이……. 참, 그렇고……. 내가 굉장히 보수적인가 봐. 굉장히 보수적인 데가 있어요. 어쨌든 ‘가정은 한 번 이루어졌을 때, **끝까지** 지키고 가야 한다.’ 그게 있는 거야. 어찌 됐든…….

4) 주제 3 - 새로운 가족 : 레즈비언 관계

그 음……. 미국영화였는데, 80년대, 미국에서 80년대를 배경으로 해서 만든 영화가 있었는데, 할머니 두 명이 그러니까 80이 넘었지. 정말 평생을 살다가, 한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근데 죽은 사람 앞으로 이름이 돼 있었던 거예요. 집이……. 모든 경제, 그러니까 법으로 치자면은 죽은 사람 거니까……. 죽은 사람 가족한테 가는 거예요. 직계가족으로 딱! 가는 거예요. 그니까 고모, 조카가 나타나 다 가져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평생 같이 산 **이 할머니**는 뭐예요? 양로원 가야 해. 응……. 그러면은 두 사람의 같이 돈을 모아서 이 집을 만들었어. 그랬는데, 하나가 먼저 가버렸는데, 법적으로 근거가 없으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해? 그걸 보고 너무 놀란 거예요. ‘가족이란 뭔가?’ 참 많이 생각을 했죠.

이인혜는 현재 파트너와 함께 살고 있다. 지금의 파트너를 만난 것은 39살 즈음으로, 파트너는 어머니의 죽음과 이혼 등 힘든 생애 사건들로 위태로웠을 때 그녀를 곁에서 지켜주었다. 병세가 악화된 이인혜의 어머니는 두 사람의 관계를 정확하게는 잘 모르셨지만, 딸과 함께 있던 파트너에게 “고맙다”는 말을 남기고 떠나셨다고 한다. 이인혜와 그녀의 파트너는 레즈비언 친목공동체에서 만났으며, 함께 살게 된지 4년 만에 유언공증의 절차를 진행했다. 레즈비언 동반자의 관계가 법적으로도 전혀 인정되지 않는 현실에서 유언공증의 절차는 두 사람을 ‘가족’으로 확증하고 인생의 동반자이자 배우자로서 상대방에게 최소한의 권리와 경제적 안전망을 확보해줄 수 있는 유일한 방안으로 고려되었다.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이들은 레즈비언 관계의 대안적 방식을 제시하는 일종의 작은 사회적 실천이라는 인식하에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갔다.

이들은 시간을 두고 서로의 가족들에게 커밍아웃했으며, 가족들은 이인혜의 행복을 우선시하며 그

녀의 파트너를 가족의 일원으로서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커밍아웃과정이 상대적으로 힘들었던 파트너 집안에서도 이제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면서 명절에는 서로의 집안을 오가며 원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다. 조카의 결혼식에도 함께 참석하여 가족친지사진도 함께 찍으면서 이들은 대안적이고 확장된 가족으로서 살아가고 있다. 최근에는 이인혜의 교회에 파트너가 함께 나가게 되면서 신앙과 영성이 두 사람의 관계에 중요한 공유점이 되었으며, 이 두 사람의 동반자 관계는 ‘소울 메이트’라는 새로운 관계로 개정(改訂)되고 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과 이별에 관한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생애사적 사건이자 생애사적 전환이다. 이 사랑과 이별에 관한 주제는 동성애자들에게는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각성하고 정체체성을 재구성하는 중대한 생애사적 사건이자, 동성애자로서의 삶을 사는 일생일대 생애사적 전환이기 때문에 더욱더 핵심적이다. 정에서 나타나는 레즈비언의 관계들은 매우 다양한 층위를 가진, 역동적이고 긴 이야기임에는 틀림없다. 생애 이야기에는 Giddens(1996, 배은경·황정미 역)¹⁴⁾가 언급한 소위, 열정적인 사랑, 낭만적인 사랑, 합류적인 사랑의 요소들이 편재되어 있으며, ‘순수한’ 동시에 ‘순수하지 않은’ 관계들이 얽혀져 있었다. 그는 “순수한 관계”를 재생산의 필요로부터 해방된 조형적(plastic) 섹슈얼리티의 발전과 함께 강화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러한 ‘순수한 관계’로서 ‘레즈비언 관계’를 분석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전통적인 규칙이나 규범, 혹은 제도로서 법적인 묶음이 없는 레즈비언의 관계는 전적으로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유지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인혜와 파트너와의 관계가 시사하는 바는 크다. 이인혜의 생애사에서 파트너와의 관계는 매우 극적인 의미를 가진다. 이인혜는 몸에 심각한 화상의 상처를 가지고 있었고, 이 화상은 여성의 몸, 여성성, 여성으로서의 욕망 모두를 의심하는 기제로 작동할 만큼 그녀에게는 질곡이었다. 몸에 대한 이인혜의 의식이 반전되는 과정은 동성애 섹슈얼리티를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경험과 떼놓을 수 없다.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타자로부터의 인정은 ‘불완전한 몸’이라는 무거운 족쇄를 풀어내는 해방적인 의미였다. 이 받아들여짐으로부터 스스로 불완전하다고 생각한 자신의 몸과 화해할 수 있었다. 이인혜는 태어나 처음으로 자신이 온전하게 사랑받고 있다는 따뜻한 안도감을 느낄 수 있었으며, 자신이 소중한 사람이라는 자존감을 회복하게 되는 치유적 관계를 경험할 수 있었다. 이들이 보여주는 따뜻한 돌봄과 치유, 신뢰와 관심, 그리고 지속적으로 협상되는 섹슈얼리티 등은 Giddens가 말하고 있는 레즈비언의 “순수한 관계”에 가깝다.

이 파트너를 만났을 때, ‘내 인생의 출발점이 이건가?’ 그렇게 느꼈어요. ‘내가 드디어 인정받는 욕

14) Anthony Giddens는 『현대사회의 성, 사랑, 에로티시즘: 친밀성의 구조변동(1996)』에서 혈연에 의해 의무처럼 부과되던 친족관계가 점차 얽어지고 친밀성과 애정에 기초한 관계가 보다 증시되는 사회적 흐름을 “친밀성의 구조변동”이라는 단어로 분석하였다. 그는 이러한 관계 외적인 것에 의존하지 않고 관계 그 자체의 내재적 속성에 따라 유지되고 변화하는 관계를 “순수한 관계(pure relationship)”로 명명하였다. 순수한 관계란 사회적 관계가 그 자체를 목적으로 시작되는 상황을 가리키며, 이 관계는 포섭되어 있는 당사자들이 서로에게 충분한 만족을 준다고 당사자 모두가 생각하는 한에서만 지속될 수 있다. 따라서 관계의 당사자들은 그 관계가 갖는 의미와 그것의 지속 여부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협상해야 한다(배은경, 황정미 역, 2003: 15-17).

체와 사람이 되었구나.’ 모르겠어요. 이게 굉장히 비중이 크기는 컸었나봐요.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기는 해요. 처음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생각을 한거야.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의 파트너는 위로도 하지만은 치유도 같이…….

여기를 손으로(한쪽 손을 허벅지에 대며)…… **딱!** 만지는 거야. 정말 살아가면서 얼마나 애썼다고……. 그 애씀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했겠다고……. “자기하고 자기 전에도 얼마나 두려웠었냐?”라고 얘기하는데……. 두려웠었는가는 아니었는데 둘 중에 하나였죠. 아님 말고, 딱 그거였는데, 의외로 너무 이거를 쓰디듬어주고, 안아주고, 애썼다는 그 말이……. 다 필요 없어. 다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냥 이 사람이 내 사람이구나.’이것 밖에 없었어요. (중략) 사실은 나는 ‘둘 중에 하나다.[헤어지거나 혹은 사귀거나]’고 생각했고……. ‘상처 받으면 받는 거야.’ 이런 식을 했고……. 이제, 파트너에 의해서 받아들여지는 것이 생긴 거예요. ‘나도 그냥 좋아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런 거……. ‘그렇게 사랑 받을 수 있구나. 나도 육신으로도, 이 파트너한테…….’ 나는 사랑 못 받을 줄 알았어요. 남편이 떠났기 때문에…… 그리고 상처가 있잖아요. 사랑을 못 받을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사랑을 해주고 위로를 해주고 계속 챙겨주고 이러니까……. 삶의 자신감이 사실은 이 파트너를 통해서 좀 더 생겼어요. 나는 일반 쪽에 있을 때는 인생이 우울했어요. 근데 이반에 오니까, 이 친구를 통해서 내가 확 자신감이 생기고, 사랑을 받으니까 자신감이 생기고……. 그래서 단 한 번도 지금까지도 똑같이 어찌면……. 그걸 사랑해 줄 수 있는지……. 그게 너무 감사하죠.

그러나 이러한 레즈비언 관계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사실 이들에게는 ‘순수한 관계’로 갈지, 혹은 ‘순수하지 않은 관계’로 갈지에 관한 선택지가 전혀 없었다는 점이다. 그들에게 이 문제는 “친밀성의 구조적 변동”이 아니라, 언제나 “순수한” 관계이도록 강제되는 문제였다. 중요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가족에게 공유할 수 없고 사회에 드러낼 수 없는 구조적 맥락과 현실이 무시된 상태에서, 레즈비언의 관계를 두 사람의 순수한 의지에 따라 관계가 협상되고 유지되는 “순수한 관계”로 평가하고자 했다면 그건 매우 순진한 가정인 셈이다. Giddens(1996, 배은경·황정미 역)가 “두 사람의 관계가 법적인 틀에 의해 유지되는가? 혹은 관계의 내재적 특질에 대한 두 사람의 합의와 평가에 의해 유지되는가?”의 질문을 통해 1:1의 친밀성의 구조변동을 분석하려 했다면, 그 분석대상은 법적이고 제도적인 틀에서의 안정과 그 바깥의 자유에 대한 선택지(選擇肢)를 모두 가진 이성애 관계로 한정해야 했다. 레즈비언은 특별하게 걸러진 공기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레즈비언의 관계를 사회적인 맥락으로부터 분리시켜 오직 두 사람만의 순수한 관계로 의미부여하는 것은 이들이 살고 있는 현실을 무시하고 이들의 관계를 박제(剝製)하는 것이므로, Giddens(1996, 배은경·황정미 역)가 레즈비언의 관계로 개념화하고 있는 “순수한 관계”는 비판적으로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레즈비언 관계를 순수한 관계의 전형(典型)으로 간주하는 것은 강제적인 이성애가 그대로 반영된 ‘저울 이미지’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이인혜와 파트너와의 사랑과 관계는 오롯이 개인의 의지에 의해서만 순수하게 유지되지 않았다. 이들 커플은 ‘유산공증절차’라는 최소한의 법적 절차를 거쳤고, 이 과정을 통해 이들은 보다 ‘제도적인 가족’이 되었다. 또한 이들은 서로의 가족에게 커밍아웃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고 자신들의 관계를 다른 가족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되었는데, 가족과 친족이라는 사회적인 집단에서의 지지와 격려

는 이들의 관계가 생애과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숙하고 발전하도록 강한 동력을 제공한다. 이는 우리 사회가 이성애자와 마찬가지로, 성적 소수자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기본적인 사회적 조건들을 구성하고 제시해야 함을 의미한다.

가족이 아닌데 가족으로 사는 거잖아요. 가족이라는 증거가 없는 거죠.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회구조로는 가족이 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언공증을 하자”, 그래서 2004년 우리 둘이 유언공증을 했어요. 우리가 살면서 4년 만에 했나? 변호사한테 (중략) 그 집이며, 모든 보험, 다음에 차, 하이터튼 경제와 관련된 모든 부분은 인제 유언을 한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은, 내가 죽었을 때는 상대방 앞으로 다 가는 거예요. 상대방이 죽었을 때는 내 앞으로 다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이 갑자기 사라졌을 때, 경제적인 문제로 힘들지 않게 살지 않게, 그게 위로가 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최초였던 것 같애. 다들 그 문제를……. 놀래더라구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고……. 우선 헤어지는 커플도 너무 많고 하나까. 그렇게 유언공증을 하고, 이상하게 공증하고 나서 가족이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안정감이 들면서 훨씬 가족으로서 사는 거예요. **훨씬 가족으로** 남들한테는 언니 동생이라 하지만은, 우리는 **정말** 가족인거예요. 우리에게 가족이라 하면, 무엇을 댈 것인가를 생각했을 때, 언니 오빠,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하지만, 우리한테 가족은 **우리 둘** 인거예요. (중략) 참, 이렇게 되기까지는 애를 참 많이 썼어요, 서로, 우리 가족 모임에도 데려가고, 이쪽 모임에도 가고, 조카 결혼식 때도 나도 가족사진 같이 올라가고, 가족이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는 관계? 남남? 이라고 생각하면 못 가죠. 당연히 못 가는 거 아녜요? 한 **가족**이라고 생각한 거야. 근데 한 가족이지. 한 가족이라고 생각하니까 당연히 되는 거예요.

5) 주제 4 - 순응의(docile) 몸 : 호모포비아

우리 사회는 “동성애자인가? 이성애자?”인가의 여부에 따라 정의되는 ‘정상성’과 ‘비정상성’의 문제에 엄청나게 집착한다. Weeks(1997, 서동진·채규형 역)가 지적했듯이, 죄인이나 범죄자로 도덕적으로 단죄했던 고대 기독교 율법에서의 금기사항들은 근대 19세기 후반 성과학의 과학 언어들, 즉 도착에 관한 진단적 언어들로 옮겨지면서 곧 의료적 탐구의 대상이 되었는데, 근대 사회에 들어와 소위, 과학과 의학의 분야에서 벌어진 동성애의 원인론에 관한 논쟁은 도착의 병리적 성격, 퇴폐성, 광기, 질병, 병약성 등과의 연관성을 더 강조하면서 성행동과 섹슈얼리티에 관한 병리적 모델을 더욱 확고하게 했다(서동진·채규형 역, 1997: 100). 다수의 ‘과학적인’ 연구들 즉, “동성애자들의 심리적, 정서적, 행동적, 성적 특징은 무엇인가?”, “동성애자들이 취약한 질병은 무엇인가? 그들이 가진 문제나 어려움은 무엇인가?” 등에 관한 연구들은 이들이 이성애자와 왜, 어떻게 다른지를 규명하며 이들을 성적 이단(異端)의 기호로 코드화하면서 타자화된 특정한 집단, 하나의 종(species)으로 범주화했다. 동성애가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선택이 아니고 태어나면서 결정되는 기질적인 것이라는 최근 일련의 결과들은 ‘도덕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역사적인 낙인과 비난으로부터 동성애자들을 부분적으로 보호하는데 기여했지만 결국은 동성애자들을 특정한 사람들의 무리, 즉 종별화하는 것에 귀착되었고, 여전히 이들을 타자화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그러나 Foucault와 Weeks는 ‘동성애자’라는 범주의 출현과 섹슈얼리티에 할당되는 사회적 의미가 구성되는 역사적인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병적이고 비정상’이라는 기호가 권력의 상호작용속에서 행사되는 ‘권력의 효과’임을 보여주었다.¹⁵⁾ Foucault(1976, 이규현 역)는 섹슈얼리티를 권력이 작동하는 효과이자 권력의 사회적 배치이며, 관습들과 행위들에 부여하는 일련의 의미들이며 여러 요소들의 관계인 것으로 정의한다. 그는 사회가 섹슈얼리티를 평가하여 위계와 서열을 설정하고 처벌과 지지의 방식을 동원하여 이 계층화를 안정적으로 재생산함으로써 성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규범을 유지한다고 보았다.¹⁶⁾ 성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규범은 개인적이고 심리적인 차원에서 사회적이고 제도적인 차원까지, 개인적 가치에서 이데올로기적인 수준에서 이르기까지 매우 면밀하게 작동한다. 그 중 가장 많이 논의가 되어 온 것은 동성에 혐오 즉, ‘호모포비아(homophobia)’¹⁷⁾이다. 호모포비아는 동성애자들이 일상의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차별과 배제의 방식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동성애자에게도 내면적으로 체현되어 자신을 끊임없이 감시하고 행동을 검열하는 방식으로 실천되기도 한다. 그 대표적인 예는 ‘동성에 섹슈얼리티’에 대한 ‘죄의식(guilty)’이다. 호모포비아가 가장 첨예하게 드러나는 지점은 종교적인 쟁점과 건강 관련 영역이다.¹⁸⁾

이인혜의 생애이야기는 동성에 섹슈얼리티에 대하여 사회가 가진 제도적인 차별과 혐오를 경험하며 또한 이러한 사회적 시선과 규범들을 체현함으로써 규제되고 훈육되어 “순응하는 몸”임을 말하고 있었다. 이인혜는 독실한 기독교집안의 모태신앙을 가진 이로서, 현재 그녀의 삶에서도 종교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동성애를 “고독과 소모라의 타락”으로 단죄하는 기독교 신앙 안에서 그녀가

15) 어느 문화에서나 동성애적 행위는 존재했으며, 서구의 경우는 그 역사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으나, 다만 고대의 민법 또는 교회법에서의 남색(男色)은 금지된 행위의 한 가지 유형이었을 뿐 동성애자라 불리는 특별한 인격적 유형은 존재하지 않았다(이규현 역, 2004: 64)는 것이다. 그러나 1860년대에서 ‘동성애자’라는 용어가 고안되었고 이후 19세기 중반부터 동성애자는 점차 특수한 종별적 특징을 갖는 존재가 되면서 점차 성행위가 특수한 인격적 유형을 정의하게 되었다(서동진·채규현 역, 1997: 44-45).

16) 이 계층화된 성적 가치의 위계에서 가장 하층에 위치한 것은 문란한 게이, 술집을 배회하는 남성적 레즈비언(dyke), 성전환자(trans-sexual), 페티시스트(fetishist), SM(sadomasochist), 성매매 여성 등으로, 이들은 정신병이나 범죄와 관련된 사람들로 악평과 여러 가지 제도적인 불리함이나 제한, 배제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이성애는 좋은 것으로 자연적이며 정상의 섹슈얼리티로 상층에 위치되는 반면에 동성애나 혹은 결혼하지 않은 상업적 성관계 등은 나쁘고 비정상적이며 비자연적인 섹슈얼리티로 서열이 가장 낮은 하층에 배치되는 것으로 계층화 되는데 이러한 행위를 종별로 구분하고 이를 타자화하면서 이 비정상적인 섹슈얼리티에 대한 위협의 이미지들을 양산해낸다(Rubin, 1999: 153).

17) 이것은 사회적인 구성물로, ‘비정상적이고 위험한 섹슈얼리티’를 가진 동성애자에 대하여 다차원적으로 작동하는 무조건적인 거부감과 비합리적인 혐오감을 말한다.

18) 포진, 경부암, AIDS처럼 성과 관련된 질병들은 성적 비행에 대한 징벌이나 신의 응보, 혹은 자연의 처벌로 간주되곤 했다. 동성애자를 향한 혐오나 공포는 사회적으로 유포된 AIDS 위기와 직결되어 있다. 1980년대 AIDS 위기는 미국을 도덕적 공황으로 몰아넣었고, 과거에는 마녀사냥을 야기했던 이 도덕적 공황은 근대에서 의학이라는 든든한 배경을 깔고 새로운 희생양을 찾아냈다. AIDS는 유독 동성애자에게만 내려진 재앙인 것처럼 간주되었고, 여러 난폭한 매체들은 ‘게이 돌림병(gay Plague)’라는 용어를 남용했으며, 이로써 사회에서는 동성애자를 거부되고 축출하는 소위, ‘정화의 실천(practice of decontamination)’이라는 제2의 마녀사냥의 현상까지 발생하기에 이른다(서동진·채규현 역, 1997: 142-143).

원죄의식으로부터 자유롭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30대 중반에서 의료사고로 인한 자궁적출수술에 대해서 그녀 스스로 “동성애에 대한 죄값”으로 의미부여 하는 지점에서 내면화된 그녀의 호모포비아인 죄의식이 가장 단적으로 드러난다. 동성애 섹슈얼리티의 의미가 병리적인 것으로 구성되는 사회적 역사적 과정들은 이성애자뿐만 아니라 동성애자들에게도 체현되면서 자신에게 의료적인 상황이 제기되었을 때 자신의 동성애 섹슈얼리티를 쉽게 질병과 연관되는 것으로 해석하게 된다.

나는 인제 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이렇게 물론, 어렸을 때부터 율법에 대해서 배운 적은 없어요. 주일학교 교사한테 배운 적이 없었기 때문에 잘 몰랐지만, 어쨌든 동성애가 나쁜 거는 성경을 통해서 늘 얘기하잖아요? 목사님들이, 그럼 내가 안 나가거나 거부물 하거나 이랬어야 하는 건데……. 그 행위를 한 것에 대한, ‘이거는 보은인가? 아니면 이거는 벌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야. 이렇게 죄값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수술할 때, 그래서 1차 수술한 산부인과에 대해서 아무 것도 말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내 죄값이다’ 생각한 거예요. ‘죄값을 치루기 위해서 수술을 해서 이긴 없어야 한다.’ 생각한 거예요.

이인혜에 체현된 죄의식은 파트너와의 관계에서도 읽힌다. 현재 두 사람의 관계는 육체적 관계보다 영적인 관계를 더 지향하고 있었다. 이는 두 사람의 관계가 영성적인 보살핌을 주고받는 또 다른 차원으로 전화(轉化)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 사회의 성담론으로는 마치 큰 문제인 것처럼 논의되지만 실제로는 많은 커플들이 살아가는 일상적인 삶의 모습이기도 한 이성애 부부의 섹스리스(sexless)처럼, 이인혜와 파트너와의 섹스리스도 이상하거나 문제이지 않은 일상적인 삶의 모습이다. 이는 레즈비언에 대한 사회의 대표적인 편견이자 오해인 ‘과잉성애화’의 허구적이고 왜곡된 이미지를 비판할 수 있는 중요한 지점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를 “간증해야 한다”고 구술하는 대목은 동성애 섹슈얼리티에 대한 죄의식이 묻어있다.

우리는 너무 신기한 게, 우리가 10년 쯤 넘게 10년 살았잖아요, 한 2년까지는 우리가 정신없이 살았던 것 같애. 막 육체관계도 너무 열심히……. 막 그랬고, 한 3년 우리가 사귀면서 3년 이후, 한 4년째부터 교회를 같이 따라서 같이 왔거든요. 그때부터 관계를 못하는 거야(속삭이듯이, 작은 목소리로) 아직까지도 없어. (면접자 : 교회를 다니면서요?) 응……. 우리가 억지로도 아니거든요, 이거는? 억지로도 아니예요, 나도 억지로도 아니고, 선배로도 억지로도 아녜요, 지금까지 아무~ 그게 없어요, 그런데 살아가죠. 그리고 각방 쓰고…….한 방을 썼거든요, 2년까지 한 방을 썼어요, 3년부터 각자 떨어져서 자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불만도 없으면서 같이 의지도 하면서 아무 불평이 없는 거야. 서로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이거 정말 간증해야한다니까.

모태 신앙을 가진 이인혜에게 교회로부터의 ‘내침’은 사회의 어떤 배제나 차별 혹은 어느 개인의 극단적인 혐오적 반응보다도 더 강력하고 날카로운 상처를 낸다. 현재 이인혜가 파트너와 함께 나가는 교회는 물론 동성애에 대한 입장이 전환적으로 다른 것은 아니다. 그녀에 따르면, 교회의 예배에서 동성애 섹슈얼리티에 관한 신자들의 간증이 있었다고 하는데, 간증의 맥락은 동성애를 ‘죄’로서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었으며, 회개하면 고침과 용서를 받게 된다는 것이었다. 교회에서 동성애를 죄악시하

는 한 동성애에 대한 이인혜의 태도는 양가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동성애를 증대한 죄악으로 단죄하는 교회의 입장을 신자들이 견고한 신앙의 한 요소로 구축하면서 교회의 뿌리깊은 호모토피아는 지속적으로 확대 재생산된다. 그 결과, 교회는 신앙을 가진 많은 '성적 소수자'들에게 영적인(spiritual) 학대를 가하는 질곡의 장소가 되고 있다. 2001년 한국의 사회복지학 전공생과 미국의 전공생들의 동성애혐오증을 비교 조사한 연구에서 한국의 경우 동성애혐오적인 태도를 보인 비율이 조사대상의 70% 이상으로 매우 높았는데, 이들 중 특히 종교를 가진 경우에 동성애혐오가 더욱 높고 견고했다는 결과(Lim and Johnson, 2001)는 교회가 동성애혐오를 재생산하는 주요한 사회적 기제가 되고 있음을 확인시켜준다.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고민이……. 내가 갈 곳이 없는 거, 같은 거예요. 갈 곳이 없는 것 같애. 왜냐하면은 내가 아는 말씀은 예수님도 죄있는 사람, 죄있는 자들과 같이 함께 식사하시고 말씀을 나누셨다고 하는데, 내가 가서 대화를 하고 식사를 하고 하는 것이 말씀 듣고 그렇게 하는 건데, 그 자리가 내가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서조차도 내가 버림을 받는 느낌…… 때문에……. '내가 갈 곳이 없다……'라는…… 걸 느꼈어요. 그니까 나는 믿는 사람으로서, 그 생각을 하니까 좀 우울했어요. 많이 우울했어요. 사회적…… 뭐 취직하는데 숨기고 갈 수는 있어요. 근데 교회는 숨김이 되다가도 들통이 났을 때, “아니다”고 말하지 못하잖아요. 거짓말이 안되잖아요.

6) 주제 5 - 저항의 장소 : “복받은 몸”

그러나 삶은 '역설'이듯이, 이인혜는 일상의 생생한 경험들을 통해서 '불완전한 몸'에 대한 자의식을 넘어 '공감과 위로의 몸'이라는 주체적인 의미를 재구성해낸다. 그녀는 사회의 부당한 차별과 배제를 경험하면서도 이에 굴하지 않고 이 두터운 벽을 깨고자 노력하는 '저항하는 장소'로서의 몸'로서 매우 탄력적인 삶을 살아내고 있었다.

어린 시절, 이인혜는 태권도와 합기도 등 신체적 운동을 통해서 불편했던 몸에 대한 물리적인 통제권을 조금씩 확보해갔다.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운동 능력의 습득은 불편했던 몸의 재활과 자신을 보호하는 수준을 넘어 타인에 대한 물리적인 우위를 확보하는 힘과 그에 따른 자신감을 갖는 것을 의미했다. 그녀는 이 과정을 통해서 가해자였던 외삼촌, 자신을 보호해주지 못했던 어머니, 함께 어울려주지 않았던 친구들에 대해서 품고 있었던 가공할만한 적대감과 공격성을 건강하게 표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며, 원망과 증오, 피해의식 등 많은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들로부터 벗어 날 수 있는 토대들을 만들 수 있었다. 화상으로 겪었던 모든 경험들은 진정한 위로와 공감이 자랄 수 있는 자양분이 되었으며, 이인혜는 자신처럼 상처받고 아픈 아동들과 일하기 위해서 사회복지학과로 진학했으며, 자원봉사활동 등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실천현장에서 장애를 가진 아동과 만나게 되었다.

이제 확실히 내가 상처가 있으니까 위로도 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상처가 없는 사람은 그만큼의 위로는 못줘요. 쉽지가 않아요. 지식적으로만 탁탁 되고, 원리원칙만 따지고, 얘기를 하면은 엄마들이 힘겨울텐데, 난 내가 아파봤잖아. 그리고 내가 재활훈련 해봤잖아. 내가 걷는 연습도 해보고, 내가 안

해서 힘들어서 울어도 보고, 그 다음에 애들이 놀렀을 때, 그 기분을 알잖아. 나는 그래서 장애아동들이 받는 스트레스를, 학교에서 받는 왕따나 이런 거를, 너무 잘 이해하게 된 거죠. ‘아, 이 아이는 나였구나.’ 그러면서 또 형제들이, 나로 인한 상처를 많이 받았다는 것도 장애 아동의 형제들을 통해 알게 된 거죠. 어렸을 때 나는 몰랐거든. 그 때는 내 상처 때문에 내가 제일 아팠다고 생각했지. 오빠나 언니들은 어떤 마음이었는지……. ‘이 부모들은 나의 엄마구나.’ 엄마를 좀 원망했었어요. ‘왜, 나를 더 치료해주시지 않는 거지? 이 상처를 어떻게 해주지 않는 거지?’ 지금 와서 생각하니, 엄마도 방법이 없었던 거야. 너무 심하게 다쳤으니까. 엄마의 마음도 조금 알겠더라고요. 여기서 장애아동 부모들 만나서, 이 부모님들의 얘기를 듣다가 보니까, 그 부모의 마음……. 그리고 상담도 너무 잘 되는 거야. 나의 체험 때문에, 그런 사고가 나서 병원에서 치료받고 힘든 재활훈련도 했고, 학교에서 왕따 당해……. 그래서 사실, 사회복지를 전공하게 됐어요. 나같은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어서. 그래서 장애 아동 쪽으로 일하게 됐고, 내 상처와 아픔이 이 장애아동과 다르지 않고, 우리 가족의 상처와 아픔도 장애부모, 장애인 가족의 상처와 아픔과 다르지 않은 거……. 정말 **절절히** 공감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위로와 지지는, 전혀 이런 경험이 없는 사회복지사와는 다른 거지. 아이들을 안아줘도, 어머니를 안아줘도……. 그런 건 말없이도 통하는 거니까. 내 마음이 전달이 되는 거죠.

그녀에게 화상은 가장 큰 생애사적 의미를 가지는 핵심어로서, ‘여성’이라는 섹스와 젠더를 의심하게 하는 치명적인 불완전함으로 해석되었지만, 이인혜는 이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압도하려 했던 화상의 트라우마를 떨쳐냈다. “화상으로 인해 내 인생이 좀 그릇이 되었다”고 말하는 그녀에게 이제 화상의 상처는 더 이상 “괴물처럼” 일그러진 상처가 새겨진 ‘불완전한 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픔을 공유하는 사람들에게 그 누구보다도 진실한 “위로와 공감을 배로 할 수 있는” 몸을 표상한다. 그녀는 화상의 상처를 청천벽력같은 재앙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재명명함으로써, 자신이 가진 놀라운 탄력성(resilience)과 주체적인 행위성(agency)을 보여주었다.

나는 좀 공주과야. 내가 이 상처만 없으면, 나 같은 사람은 재수가 없는 거야. 한 마디로, 누군가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 몸뚱아리에 있는 이 화상 때문에 내가 많이 죽은 거죠. 혼자 울기도 많이 하고, 많이 성격도 죽고, 많은 사람이 들어오고 이해가 되고 위로가 되고, 그러니 이게 감사할 수밖에. 아니면, 얼마나…….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도 아니었고……. 화상에 의해서 내 인생이 그릇이 좀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 거예요. 그나마 사람을 대하는 게, 이게 없었으면 난 좀 웃었을 거야. 감사한 거지. 그 **진짜** 그건 있어요. 정말. 진짜, 고마운 것 같애. 참, 이렇게 되기까지가, 이걸 인정하기까지가 힘들었는데, 인정하니까 정말…….(하~ 짧은 한숨) 우리 그 저, 여기에 전신에 화상이 있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못 봐. 너무 힘들어서, 무서워갖구. 눈 코 입만 보여. 그 사람한테 달려가서 그 다, 녹아버린 이 팔을 딱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이 나밖에 없더라니까요. 그 많은 사람 중에서, 한 장소에서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딱 나타났는데, **다** 놀라는 거지(놀라서 커진 눈으로). 근데 가서, 근데 손도 없어. 손가락이 하나도 없어. 딱 움켜지고 눈 마주치고 얘기한 사람은 나 밖에 없다고 하더라고. 깜짝 놀랐대. 자기는, 누가 저렇게 얘기를 막, 달려와서 얘기를 하나 해가지구. 근데 할 수밖에 없는 그릇을 준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준 거예요. 이게(허벅지를 가리키며) 복인거야. 이것을 복이라고 생각하기까지는 정말 많은 세월이 흐른 거지. 많이 울고, 아니라고 떼쓰고……. 근데 그게 돼서 감사한 것 같애. 너~무! 그거는 쇼로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구요. 정말 그거는 내 체험에서 딱 나오는 것 같애.

동성애를 혐오하는 이성애주의 사회의 배제와 차별, 억압의 사회적 현실에도 불구하고, 이인혜의 생애이야기는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결정하고 살아가며, 자신의 고통 받은 경험과 상처를 자원으로 해서 타자의 고통과 상처에 더 공감하며, 불의한 사회적 조건들을 타개하고자 노력하는 ‘탄력적인’ 삶, 일상에서의 미시적인 정치학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삶에 관한 이야기들이 더 풍부해지고 있다. 그녀의 몸은 이제 ‘저항의 장소’인 것이다. 그녀는 학생들을 위한 장애인식교육현장에서 장애인들과 성적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에 대해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자 노력해왔다. 이는 아웃팅이나 해고의 위험을 무릅쓰는 것으로, 실제로 이인혜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발언으로 해임되기도 했다. 그러나 그녀는 작은 실천들을 멈추지 않는다. 동성애자 커뮤니티조차도 우려했던, 유산상속에 관한 법적 절차를 진행했던 것처럼 자신의 삶에서의 작은 실천이 사회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으리라 믿고 있다.

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이 섹스에 대해서 물어봤었어요. 장애인들 섹스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그거를 설명을 잘해줬죠, 나름대로. 그러면서 뭐, 동성애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동성애에 대해서 자신 있게 얘기를 해줬죠. 진짜 자신 있게 얘기를 해줬는데, 그 안에 동성애자가 딱 한 애가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모든 아이가 개를 집중해서 **딱** 집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빨개지고 난리가 났는데, 내가 그 아이가 돼 버린 거야. 내 기분이 그 아이 기분이 된 거야. 그 날, 기분이 조금 안 좋았지……. 그래서 개네들 다 죽었지. 그래서 엄청 세계 시켰죠[휠체어 등으로 하는 장애체험훈련]. 세계 시키고, 그 다음에, ‘내가 여기를 오래 다닐 수는 없겠다 생각을 하고.’ 동성애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한 친구를 다 같이 몸을, 몸을 그 친구를 향해서(몸을 조금 틀면서) 이렇게 짚었잖아요.(손가락을 가리키며) 여러분은 저 입장이 되지 않아서 모를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인데, 저 친구가 여러분들에게 피해를 준 적이 있느냐? 아니면은 저 친구가 뜬금없이 여러분들에게 침을 빨기를 했느냐?, 담뱃불로 지지기를 했느냐?” 뭐 이랬더니 다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숙하게 성장하는 거는, 모든 사람이 내 친구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 아니면, 저 친구가 내 동생이고, 내 형이고, 우리 엄마이고, 아빠일수가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 **우리 아빠가 과거에 동성애자였을 수도 있다. 우리 엄마가 옛날에 동성애자였을 수 있다!**” 그 말 해가지고 잘렸잖아요?(웃음) (면접자도 함께 웃음) “우리 동생이, 아니면 우리 누나가, 형이, 우리 가족에게 늘 일어날 수 있고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뭐든 매도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부모를 들먹이면서 그렇게 인제 얘기한 부분은…….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그래서 안 나왔어(웃음), 그 다음날부터. 딱 첫 날 가가지고, 첫 날 가서 그 다음 날 잘렸어. 참…… 처음이예요. 기분이 좀 되게 언짢았죠. 어~쩍…….

5. 나가는 글 : ‘우리 모두’ 의 아젠다

이인혜는 “동성애 섹슈얼리티는 본질적이며 태생적이다”라는 가설에 대해서 “만들어진 이반”이라는 급진적인 해석이 포함된 생애사적 관점을 들려주었고, “레즈비언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젠더와 섹슈얼리티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온 삶의 다층적인 결들을 생생히 보여주었다. 그녀가 레즈비언으로서 현재 살아내고 있는 삶은 고정되지 않고 반전하는 ‘역설의 미학’을 드러

낸다. 이인혜는 역사적으로 구성되어온 동성애 섹슈얼리티에 관한 사회적 의미를 체현하고 ‘순응하는’ 몸이나, 또한 레즈비언으로서 억압과 차별을 인식하고 이를 타개하고자 노력하는 이른바 ‘저항의 장소’로서의 몸이기도 하다. 생애 궤적이 바뀌었다고 할 만큼 절대적으로 고통스러웠던 화상입은 몸의 질곡은 생애 과정을 통해 타자에 대해 진정으로 공감하고 위로할 수 있는 “복받은 몸”을 향한 ‘도움 달기’가 되었다.

레즈비언의 삶에 관한 이 연구의 과정은 나를 포함하여 ‘사람(person)’과 그 삶을 이해함에 대한 연구자의 성장기(成長記)이다. ‘차이’를 무화(無化)할 의도는 아니지만, 이성애자인 연구자가 이 연구를 통해서 더 많이 각성하고 성찰하고 체험한 것이 ‘차이’보다는 ‘같음’이었다고 ‘무디게’ 말하게 된 것조차도 연구자의 성장을 의미한다. 사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성적 소수자’, ‘게이 혹은 레즈비언’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전형적이면서도 따가운 시선을 쫓는다. “한국 사회에서 레즈비언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연구질문 자체도 이들이 ‘이상한(아프고 병든)’ 사람들이거나 ‘특이한(일탈적이거나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삶을 살 것이라는 ‘타자화(otherization)’의 시선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은 것 같다.

우리 사회는 사람들을 섹스, 젠더, 섹슈얼리티, 인종, 민족, 학력, 장애 등 여러 가지 축(axis)에 따라 구분해왔고, 권력 관계가 명백하게 작동되는 이 분류들로부터 사회적인 불평등과 배제, 차별이 실천되어 왔으나, 정작 이 분류법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보다는 불리한 입장에 놓인 사람들에 대한 비난이나 책임귀착, 전형화가 연구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이 연구는 사회복지 연구가 범하기 쉬운 ‘피해자의 전형화’라는 중대한 오류를 비판적으로 각성하고 성찰하면서 페미니스트 인식론 안에서 연구참여자들이 지식의 주체라는 입장에서부터 ‘레즈비언 정체성’과 ‘레즈비언의 삶’에 관한 지식을 생산하고자 하였다. 레즈비언의 일상적이고 주체적인 삶으로부터 생산된 대안적인 ‘삶’을 통해서 사회복지(학)에서 일관해온 ‘성적 소수자’에 대한 침묵을 깨뜨리는 방식은 의미있는 작업일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침묵을 깨뜨리는 것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만큼 보이고 또 보이는 만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LGBT에 대한 실질적이고 전환적인 삶과 실천이 고안되고 시도되어야 한다.

이 연구는 병리적이고 비정상적인, 과잉성애화된 존재로서 오해되고 부인되어왔던 레즈비언의 사회적 실존을 타자의 기호가 아닌, 자신의 삶의 주체적인 행위자로서 확인한다. 이인혜를 비롯하여 연구 과정에서 만난 레즈비언들은 ‘이상한 그들’이 아니었으며,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서비스와 보호가 필요한 ‘클라이언트’도 아니었다. 모두들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의 삶의 이야기에는 각자 자신에게 의미있는 희노애락이 담겨져 있었으며, 그 모든 생애 과정들과 시간들은 지금 현재의 자신들을 있게 한 역사이자 성장 동력이 되었다. 또한 이들에게 레즈비언 정체성은 낙인처럼 새겨지거나 수동적으로 수용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을 사랑하는 여성’으로서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각성이며, 여성과 동일시하고 여성과의 관계에 몰두하는 물적인 삶과 경험들이었으며, 주체로서 자신을 정의하고 적극적인 삶을 구성해가는 방식들 중의 하나였다.

이러한 결과들이 의미하는 바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동성애자 정체성에 부가하고 있는 비정상과 도착, 병리 등의 의미가 부착된 이분법적 구분 안에서 대상화되는 ‘성적 소수자’가 아니라, 사회적 불

평등과 억압속에서도 자신의 삶을 탄력적으로 살아내며 일상의 실천을 통해 의미있는 변화를 만들고 자 하는 주체적인 행위자로서 '레즈비언'을 이해하는 것은 사회복지이론과 실천에서 전혀 다른 전망과 실천을 요청한다. 이들이 구조적인 불평등과 억압, 배제를 작동시키는 사회적 요소들에 의해서 분류되었고, 이 분류에 부정적이고 병리적인 의미가 역사적으로 구성되고 할당되었으며, 이 할당이 정당화해 온 사회의 억압과 차별과 모멸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 사람들로 이들을 이해한다면, 사회구조적 모순과 억압에 민감하도록 훈련받는 사회복지사들에게 요청되는 것은 신뢰할 수 있는 동맹자로서 사회 변화를 위한 전략을 함께 모색하고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섹슈얼리티의 이슈를 포함하도록 사회복지사의 윤리강령을 보다 구체화하고 사회복지학의 교육과정(curriculum)을 재편하는 작업에서부터, 이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동안 사회복지실천방법론에서 사장되어 왔던 옹호와 사회입법, 사회행동전략을 보다 생생하게 부활시키는 작업, 그리고 젠더와 섹슈얼리티를 이론적·실천적인 영역에 전위적으로 배치시키는 페미니스트 사회복지실천(feminist social work)을 고양하는 방안 등 다차원적인 영역에서 다양한 수준으로 시작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성적 소수자'인 레즈비언에 관한 연구로서, 섹슈얼리티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포함하고 있다. 이 때 '섹슈얼리티'는 변별적 변수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등과 차별을 생산시키고 유지시키는 권력의 축으로서 섹스, 젠더, 계급, 인종, 연령 등과 같이 우리 사회를 조직하는 원리이다. 젠더와 섹슈얼리티, 계급과 인종, 학력, 연령 등과 같은 여러 축들이 교차하는 "사회적인 지배 매트릭스(Collins, 2003)"안의 위치로부터 클라이언트를 정의하는 방식은 사회복지학의 초점이 '타자'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타자화의 과정'을 추적하는 것으로 이동하게 하면서 클라이언트에 관한 개인적인 설명을 사회경제적 구조와 맥락을 모두 반영하는 정치적인 설명으로 확장하도록 이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사회복지학에서 '성적 소수자 혹은 성적 지향'에 대한 연구가 '젠더와 섹슈얼리티'의 아젠다로 재구성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섹슈얼리티에 대한 접근은 성적 소수자를 변별적 타자로서 병리화하고 대상화하며 피해자화했던 기존의 주류 담론들이 가진 한계를 분석하게 한다. 또한 개인의 병리적 특질이나 유전적인 소인 혹은 특별한 개인적 취향이나 선호이거나 다양한 삶의 방식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으로 쉽게 환원시켜서 '그들의 성적 지향'에 관한 연구로 격하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권력관계와 위계구조를 조직하고 억압과 불평등을 영속화하려는 이성애중심주의 '우리 모두'의 섹슈얼리티와 이에 연동하는 젠더에 관한 연구로 재구성한다. 따라서 사회복지 이론과 실천의 장에서 "이제 젠더와 섹슈얼리티를 어떻게 배치해할 것인가?(성정숙·이나영, 2010: 37)"에 관한 전환적인 모색은 새로운 시대를 당면한 사회복지학이 제시해야 하는 중대한 전망이며, 이 전망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본 연구가 이론적으로, 실천적으로 또한 방법론적으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기를 고대하는 바이다.

참고문헌

- 구은정. 2008. “사회운동참여자들의 구술생애사를 통해 본 운동정체성의 변화”. 『경제와 사회』 78: 107-132.
- 김영천. 2008. 『질적연구방법론 I』. 서울: 문음사.
- 김진아. 2005. “몸주체와 세계: 메를로 뵈띠의 현상학적 신체론과 페미니즘”. 한국여성연구소 편. 『여성의 몸: 시각·쟁점·역사』. 파주: 창비. pp. 20-44.
- 박김수진. 2006. “레즈비언 정체성의 다양성”. 한국레즈비언권리연구소 편. 『한국의 레즈비언 권리운동』. pp. 17-24.
- 배은경·황정미. 역. 2003. 현대 사회의 성·사랑·에로티시즘: 친밀성의 구조변동. Giddens, A. 1996. *Transformation of Intimacy: Sexuality, Love and Eroticism in Modern Societies*. 서울: 새물결.
- 서동진·채규형 역. 1997. 섹슈얼리티: 성의 정치. Weeks, J. 1986. *Sexuality*. 서울: 현실문화연구.
- 성정숙·이나영. 2010. “사회복지(학)에서의 ‘성적 소수자’ 연구의 동향과 인식론적 전망: 페미니스트 섹슈얼리티 이론의 가능성”. 『사회복지연구』 41(4): 5-44.
- 성정숙·이현주. 2010. “동성애자인권활동가의 청소년기 경험과 탄력성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31: 173-204.
- 소경희·강현석·조덕주·박민정 역. 2007. 내러티브 탐구: 교육에서의 질적 연구의 경험과 사례. Clandinin, D., and M. Connelly, 2000. *Narrative Inquiry: Experience and Story in Qualitative Research*. 서울: 교육과학사.
- 오생근 역. 2003. 감시와 처벌: 감옥의 역사. Foucault, M. 1975. *Surveiller et punir : Naissance de prison*. 서울: 나남.
- 윤조원. 2005. “여성의 교환과 상징적 폭력: 부르디외의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여성연구소 편. 『여성의 몸: 시각·쟁점·역사』. 파주: 창비. pp. 95-115.
- 이규현 역. 2004. 성의 역사 1: 얇의 의지. Foucault, M. 1976. *Histoire de la Sexualite, 1. La Volonte de Savior*. 서울: 나남.
- 이나영. 2009. “급진주의 페미니즘과 섹슈얼리티: 역사와 정치학의 이론화”. 『경제와 사회』 82: 10-37.
- 이재인. 2006. “서사방법론과 여성주의 연구”. 김귀옥·김순영·배은 (편). 『젠더 연구의 방법과 사회분석』. 서울: 다해. pp. 65-95.
- 이희영. 2005. “사회학방법론으로서의 생애사 재구성”. 『한국사회학』. 39(3): 120-148.
- 임인숙 역. 2005. 섹슈얼리티와 사회. Hawkes, G. 1996. *A Sociology for Sex and Sexuality*. 서울: 일신사.
- 장윤필화. 1999. 『여성·몸·성』. 서울: 또 하나의 문화.
- 조주현. 2000. 『여성정체성의 정치학: 성, 지식, 권력망 읽기에서 새 여성의 모색으로』. 서울: 또 하나의 문화.
- 조현준 역. 2008. 젠더 트러블: 페미니즘과 정체성의 전복. Judith Butler, 2006. *Gender Trouble: Feminism and Subversion of Identity*. 파주: 문학동네.
- 한국레즈비언권리연구소. 2006. 『국내 레즈비언 인권실태 조사 보고서』.
- Bhattacharyya, G. 2002. *Sexuality and Society: a Introduction*. London: Routledge.
- Brotman, S., and S. Kranioiu. 1999. “Ethnic and Lesbian: Understanding Identity Through the Life-History Approach.” *Affilia* 14(4): 417-438.

- Collins, H. P. 2003. "The Politics of Black Feminist Thought." pp. 318-337. In *Feminist Theory: Local and Global Perspectives*, edited by Kim, S. K., and C. MaCann. New York: Routledge.
- Kennedy, E. L. 1995. "Telling Tales: Oral History and the Construction of Pre-Stonewall Lesbian History." *Radical History Reviews* 62: 58-79.
- Lim, H. S., and M. Johnson. 2001. "Korean Social Work Student's Attitudes toward Homosexuals." *Journal of Social Work Education* 37(3): 545-554.
- McPhail, B. 2004. "Questioning Gender and Sexuality Binaries: What Queer Theorist, Transgendered Individuals, and Sex Researchers Can Teach Social Work." *Journal of Gay & Lesbian Social Service* 17(1): 3-21.
- Nygren, L., and B. Bloom. 200. "Analysis of Short Reflective Narratives: a Method for the Study of Knowledge in Social Worker's Actions." *Qualitative Research* 1(3): 369-384.
- Rich, A. 1980. "Compulsory Heterosexuality and Lesbian Existence." *Signs* 5(4): 631-660.
- Rubin, G. S. 1999. "Thinking Sex Notes for a Radical Theory of Politics of Sexuality." pp. 143-178. in *Culture, Society and Sexuality*, edited by Parker, R. and P. Aggleton. London: UCI Press.
- Schrager, S. 1983. "What is Social in Oral History?" *International Journal of Oral History* 4(2): 76-98.

Beyond the “Deficient Body” -a Middle-Aged Lesbian’s Life Story-

Sung, Jung-Suk
(University of Pennsylvania)

This qualitative study explored a middle-aged lesbian’s life and her identities by the oral life history approach in feminist epistemology, where the participant is not the object but the subject of knowledge. The participant kept her own perspective that her homosexuality was not intrinsic but constructed. In her life’s history, she was a “docile body” accepting socially constructed historical meaning of homosexuality, as well as a “resistant body” protesting against social discrimination and oppression for homosexual population. She overcame an embedded negative recognition of her scaled injured body and her sexuality as “deficient”. Finally, she showed an amazing resilience and an indomitable spirit for reconstructing the meaning of her body as “blessed.” Beyond the deficient body, as an active agent not the pathologic sexual minority, she could cultivate compassion and empathy for others. From the results, it is important how to place gender and sexuality in the context of social work theory and practice. Sexuality, not sexual orientation, is ‘our’ collective agenda to address the social problems which were associated with social hierarchy, inequality, and injustice.

Key words: lesbian, feminist epistemology, oral life history approach, gender, sexuality, body, resilience.

[논문 접수일 : 11. 12. 06, 심사일 : 11. 12. 27, 게재 확정일 : 12. 01. 13]